

마루야마 히로코 『한국어 ‘지다’와 홋카이도 방언 ラサル와 일본어 ラレル의 연구』
(히쓰지 서방, 2016 년)
(円山拓子『韓国語 cita と北海道方言ラサルと日本語ラレルの研究』ひつじ書房、2016 年)

책 개요:

이 책은 다의어가 단순히 여러 의미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문법적 · 의미적 메카니즘이 작용하여 체계적인 의미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는 것을 정밀하게 제시한 것이다. 한국어 보조동사 ‘지다’는 많은 기능을 가지는 데도 불구하고 생산성이 높은 보조동사로서 사용되고 있고, 통시적으로 보면 새로운 의미를 연달아 획득해 왔다. 제 1 부에서는 이런 ‘지다’의 다의성을 지탱하는 메카니즘이란 어떤 것인가에 대해 여러 측면에서 분석했다. 그리고 ‘지다’의 다의성은 스키마적 의미와 문법적 특징의 상호작용에 의해 지탱되고 있다는 점에 대하여 논했다.

제 2 부에서는 한국어 ‘지다’와 홋카이도 방언 ‘らさる’, 일본어 ‘られる’를 대조분석했다. 이들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정리하여, 의미지도를 사용하여 나타냄으로써 각 형식이 가지는 의미의 전체상을 파악하고, 의미가 변화해 가는 경향과 형식간의 영향관계에 대하여 논했다.

저자 약력:

1973 년생, 2009 년 도쿄대학대학원 종합문화연구과 박사과정 수료. 박사 (학술). 국립국어연구소 프로젝트연구원 (2010~13 년). 도쿄대학대학원 종합문화연구과 학술연구원 (2010~15 년). 현재 홋카이도대학 및 후지여자대학 강사. 주요 업적으로 『한국어 보조동사 ‘지다’의 다의성 -용법간의 상호관계와 의미확장-』(도쿄대학박사학위논문, 2009 년), 「비의도와 가능의 대조연구 -일본어 ‘られる’, 홋카이도 방언 ‘らさる’, 한국어 ‘지다’」(오고시 나오키 외 편 『일본의 한국어학 -문법·사회·역사』삼경문화사, 2015 년), 「한국어의 어휘적 자타교체: 접사-이/히/리/기-에 의한 파생의 쌍방향성」(Prashant Pardeshi 외 편 『유대동사의 통언어적연구』구로시오출판, 2015 년) 등이 있다.

[관련 URL] <http://www.hituzi.co.jp/hituzibooks/ISBN978-4-89476-811-6.html>